

작별할 수 없는 장소 - <작별하지 않는다>가 기억하는 경산 코발트 광산

양진오(대구대)

1. 서론

- 지역의 문학과 문학의 지역은 동시적으로 읽혀야 한다.
- 두 개념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개입하는 개념이며 관계다.
- 지역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복수적이며 교차적인 장소성으로 이해되고 경험된다.
- <작별하지 않는다>는 제주 4.3으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호출하는 소설이다.
- 동시에 이 소설은 경산 코발트 광산을 기억하는 소설이다.
- 제주 4.3과 경산 코발트 광산은 국가폭력이 작동한 교차적인 장소다.

2. 본론

1) 문학의 지역 읽기

- 문학의 지역에서의 '지역'은 단일한 지리 공간이나 고정된 장소를 지칭하지 않는다.
- 지역은 역사적 사건의 퇴적층이며 말해지지 않는 기억들이 떠도는 장소이자 복수의 기억이 중첩된 장소다.
- 또한 지역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죽음이 운명처럼 연결된 교차하는 장소로, 그저 문학의 배경이 아니다.
- 문학의 지역을 읽어야 하는 이유 – 이 작품이 어느 지역 문학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, 이 작품이 어떤 장소의 기억을 호출하는가를 묻는 일
- 모든 문학은 지역문학이며 지역문학은 문학의 하위 범주가 아니다.

2) <작별하지 않는다>와 경산 코발트 광산
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구체적인 언어로 서술되거나 제노사이드로 맥락화되지 않는다.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깊고 어두운 수직 간격의 이미지로 순간 순간 반사된다.(독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각한다.)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희생자들은 개별화된 시신이 아니라 주검 덩어리로 나타난다.
- 그 주검 덩어리의 생존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게 이 소설의 메시지다.(제주-대구-부산)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은 명료한 사건으로 재현되는 게 아니다. 어떤 지역의 어떤 사건들은 재현 이전(텍스트의 무의식)의 단계에 머문다.



작별할 수 없는 장소 - <작별하지 않는다>가 기억하는 경산 코발트 광산

양진오(대구대)

1. 서론

- 지역의 문학과 문학의 지역은 동시적으로 읽혀야 한다.
- 두 개념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개입하는 개념이며 관계다.
- 지역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복수적이며 교차적인 장소성으로 이해되고 경험된다.
- <작별하지 않는다>는 제주 4.3으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호출하는 소설이다.
- 동시에 이 소설은 경산 코발트 광산을 기억하는 소설이다.
- 제주 4.3과 경산 코발트 광산은 국가폭력이 작동한 교차적인 장소다.

2. 본론

1) 문학의 지역 읽기

- 문학의 지역에서의 '지역'은 단일한 지리 공간이나 고정된 장소를 지칭하지 않는다.
- 지역은 역사적 사건의 퇴적층이며 말해지지 않는 기억들이 떠도는 장소이자 복수의 기억이 중첩된 장소다.
- 또한 지역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죽음이 운명처럼 연결된 교차하는 장소로, 그저 문학의 배경이 아니다.
- 문학의 지역을 읽어야 하는 이유 – 이 작품이 어느 지역 문학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, 이 작품이 어떤 장소의 기억을 호출하는가를 묻는 일
- 모든 문학은 지역문학이며 지역문학은 문학의 하위 범주가 아니다.

2) <작별하지 않는다>와 경산 코발트 광산
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구체적인 언어로 서술되거나 제노사이드로 맥락화되지 않는다.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깊고 어두운 수직 간격의 이미지로 순간 순간 반사된다.(독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각한다.)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희생자들은 개별화된 시신이 아니라 주검 덩어리로 나타난다.
- 그 주검 덩어리의 생존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게 이 소설의 메시지다.(제주-대구-부산)
-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은 명료한 사건으로 재현되는 게 아니다. 어떤 지역의 어떤 사건들은 재현 이전(텍스트의 무의식)의 단계에 머문다.

